

4월 15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15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美증시 소매지표에 발 목잡혀	골드만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증자 부담으로 급락세로 돌아서 투자심리가 더욱 냉각되며 최근 반등을 주도했던 은행주들이 약세로 돌아섰고, 3월 소매지표가 예상밖으로 부진하게 발표된 것에 영향을 받아 뉴욕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137.63포인트(1.71%) 하락한 7,920.18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7.59포인트(1.67%) 떨어진 1,625.72를,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17.22포인트(2.01%) 하락한 841.51을 각각 기록했다.
3월 소매판매 예상밖 부진	미국의 소매판매는 최근 2개월간 개선조짐을 보여와 3월 소매판매도 당연히 증가한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3월 소매판매가 예상밖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GM, 구제자금 출자전 환 기대로 하루만에 반 등	제너럴 모터스(GM)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134억달러의 구제자금중 일부에 대해 출자전환을 검토중이란 언론보도가 호재로 작용하여 급락 하루만에 4%대의 반등세로 돌아섰음. 미국 정부는 오는 6월1일까지 GM이 채권단과 노조의 양보를 통해 납득할만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파산보호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음. 이에 따라 GM은 현재 채권단에게 280억달러 상당의 부채를 출자전환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한편 노조에 대해선 퇴직자의료보험기금(VEBA)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음.
국제유가 지표부진에 속락	미국의 경기지표 부진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하며 배럴당 50달러선 아래로 떨어졌음. 14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64센트(1.3%) 하락한 49.41달러로 마감했음.
LBO로 유럽기업 부도 율 사상최고 돌파 전망	차입매수(LBO)가 오히려 유럽 기업들의 부도율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것이란 관측이 제기. 스탠더드앤amp;푸어스(S&P)는 14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차입매수(LBO)로 인해 피인수된 기업들이 인수 관련 부채 부담까지 짊어지고 있다"면서 "LBO로 인해 유럽 기업들의 부도율이 올해 사상 최고 수준인 14.7%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제목	주요 내용
윤증현 "3월 고용지표 어려울 것"	윤 장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4월 하순께에 세계경제 정기동향을 발표하는데 한국에 대해 좀 더 비관적으로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는 기존에 IMF가 제시했던 성장률 예상치인 -4%가 하향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임. 윤 장관은 "지금 경제 상황은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혼재된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단.
채권. 주식. 부동산 들쭉들쭉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기지표가 점차 개선되는 징후를 보이고 있고 3월 위기설까지 무사히 넘기면서 증시로 자금이 유입돼 최근 주가가 1,300선을 회복.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부동산도 들쭉이고 있음.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딱 막혀있던 숨통이 조금 트인 정도이고 아직 경기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음.
미 시스코, 향후 5년간 한국에 20억불 투자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존 챔버스 시스코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은 투자계획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시스코는 올해 인천자유경제구역 국제업무단지안에 `지능형 도시화 시스코 글로벌 센터(GCIU)` 건립에 착수하는 것을 필두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유비쿼터스 도시(유시티) 시스템 구축을 위해 11억달러 이상의 투자를 진행. 또 올해 상반기 국내 IT 벤처 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4,000만달러 이상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투자 규모 확대를 검토키로 했음.
자민당, 3년간 40조엔 규모 부양책 추진	중기 경제성장 계획 수립을 맡고있는 자민당의 일본경제재생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는 14일 임원회를 열고 2009년부터 3년간 사업규모 40조엔의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략 프로그램' 최종 보고서를 승인.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지난 10일 총 사업규모 56조8,000억엔의 추가 경제대책을 결정. 이에 전략회의는 이중 대출지원, 신용보증 등의 규모가 실제 재정지출에 비해 사업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제외한 대책을 수립키로 결정.
日정부, 엘피다에 자금 지원 계획	일본 정부가 일본 최대 컴퓨터 메모리칩업체인 엘피다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NHK가 15일 보도. 자금 규모나 출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음.
日, 2010년까지 CDS 청산소 설립	도쿄금융거래소는 현재 규제가 미미한 파생상품 시장 투명성을 높이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내 CDS 계약을 관장하는 기구를 만들기로 결정. 도쿄금융거래소는 지난 2004년부터 온라인 상으로 일본내 CDS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과 미국 움직임에 발맞춰 노무라와 골드만삭스재팬을 포함한 21개 금융기관들이 지난해 10월부터 CDS 중개소 설립을 논의를 진행.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